재외동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6.10.30.(금)

파독 광부·간호사 한자리에...
지난 헌신에 감사하고 오늘의 어려움 듣는다

- 재외동포청,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 맞아 초청간담회 개최
- 독일 거주·국내 정착 동포들과 만나 생활 속 어려움과 건의사항 청취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

□ 1960년대 낯선 독일 땅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대한민국 경제성장에 힘을 보탰던 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.

○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파독 간호사 파견 60주년을 맞아 10월 29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파독 광부·간호사 초청간담회를 열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는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는 파독 광부·간호사와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한 동포들이 참석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삶의 경험을 나눴다.

○ 재독한인간호사협회(회장 박소향), (사)한국파독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연합회(회장 김춘동), (사)파독근로자복지재단(이사장 손병덕) 등 관련 단체도 함께했다.

□ 참석자들은 독일에서의 생활과 귀국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, 정부에 바라는 사항을 전했다.

○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청에 이번 행사를 마련해준 것에 감사함을 전하며, △국적 회복 절차 간소화 △재외 선거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.

○ 재외동포청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날 제기된 의견을

검토하고,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낯선 땅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견디며 흘리신 땀은 가족의 삶을 지탱했고, 대한민국이 오늘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에도 큰 힘이 됐다”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○ 이어 “여러분의 삶은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역사”라며 “여러분이 걸어오신 길과 소중한 경험이 단지 개인의 기억으로만 남지 않고,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또 “그 헌신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겠다”고 말했다.

○ 재외동포청은 유관부처 및 관계기관들과 함께 파독 광부·간호사들의 목소리를 함께 경청하고,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 사항을 검토해 향후 소통과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다.

첨부 : 파독 광부·간호사 초청간담회 행사 개최 사진(별첨)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정책국 미주유럽동포과	책임자	과장	이지연	(032-585-3165)
		담당자	사무관	김광건	(032-585-316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